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9

동아시아 소설의 상호문화적 독법 연구*

우 신 영**

요 약

이 연구는 배타적 동질성을 해체하고 비교의 자세를 견지하는 독법의 계발을 제안하고 이를 상호문화적 독법이라 명명한다. 즉 각각의 텍스트를 가로지르는 대화적 읽기를 통해 이질적 문화권의 텍스트를 넘나들고 서로 접촉시키는 것이다. 한·중·일의 소설가들이 2000년대 이후 발표한 소설들을 표본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본주의라는 초도덕적 프로그램과 응전해가는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포착되었다. 한국의 소설에서 지배적으로 떠오르는 양상은 청년들의 피로한 생존투쟁이다. 중국 소설의 경우 자본과 가치의 충돌, 전통과 서구의 충돌, 개인과 사회의 충돌, 세대와 세대의 충돌을 다루기 위해 '성(性)' 문제를 충돌의 중핵에 배치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일본 소설의 경우 짙은 폐쇄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거나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근대성을 매우 지난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권의 문학적 서사들은 그러한 모순적 존재로서 문학이 갖는 현실응전의 힘을 풍부하게 내장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 앞에서 동아시아 문학은 공동의 저항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교직하여 읽는 상호문화적 독법을 통해 우리는 다채로운 사유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추상적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다문화적 마음'을 추구할 수 있다. 본고가 제안한 상호문화적 독법은 그러한 추구의 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2016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NRF-2016S1A5A8927778)
**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주제어: 동아시아 문학, 동아시아 소설,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적 독법, 상호문화적 감수성

목차

1. 다문화'주의'에서 상호문화적 독법으로
2. 동아시아 소설은 왜 상호문화적 독법을 요구하는가
3. 동아시아 소설의 공통-마음, 다른 표정
4. 결론을 대신하여

1. 다문화'주의'에서 상호문화적 독법으로

'다문화주의'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하자마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때로는 쿨하고 관대한 글로벌 노마드를 떠올리게도 했고, 때로는 고부열전을 펼치는 결혼이주자 여성을 떠올리게도 했다. "사장님, 나빠요!"를 외치는 블랑카의 원망과 "망고스틴의 속살 같은"[1] 이국 미녀를 동시에 연상케 하기도 했다. 다문화 담론으로 통칭되는 논의들 안에는 다양한 정책 포럼과 무수한 분야의 학술 담론, 심지어 법조문(〈다문화가족 지원법〉[2])까지 공존했다.

그러나 이같은 담론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은 관(官) 주도적 성격이 지배적이며, 문화적 동화(同化)가 가능하다는 동화(童話)적 환상에 일정 부분 침윤되어 있었다.

1) 정인, 「타인과의 시간」, 『그 여자가 사는 곳』, 문학수첩, 2009.
2)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한다.

이질적 문화가 접촉하는 장소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 갈등은 대개 중층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다문화 담론들이 그 중층성을 천천히 검토하기보다는 갈등을 말끔하게 봉합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 계층이나 젠더의 문제를 생략해버리는 '부티크 다문화주의'[3]에 머물기도 하고, 선명한 국가 단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민족 순혈주의'라는 "무서운 사랑"(terrifying love)[4]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질적인 것과의 불편한 조우가 남기기 마련인 상흔과 고통이 '문화는 다양한 것'이라는 산뜻한 선언 앞에서 흐릿하게 처리된다. 당장 내가 속한 집단 안에 고기를 먹지 않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나와 다른 종교를 믿는 타인이 들어설 때,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할 때 내게 우선적으로 당도하는 느낌은 '불편함'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환대'의 윤리를 되새겨 보아도 어쩔 수 없다. 그러한 불편함을 치열하게 경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언되는 다문화 담론은 공허하다. 어정쩡한 포옹의 제스처 속에는 타자가 갖는 효소적(fermentativ) 기능[5]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상 우리는 매일 타인의 다름에 맞닥뜨리며, 그 경험이 늘 엑조틱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불편한 맞닥뜨림을 반복하기만 하면 점차 상호이해가 증진된다는 접촉가설 역시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다.[6] 다름과의 접촉이 폭증하면서 각종 혐오사태가 잇따르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물리적으로 공존하면서 '유효충돌'(efficient collision)[7]을 이루지 못

3) 김학희, 「부티크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다문화교육』 1-2,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2010.
4) Lenore L. Walker, *Terrifying Love*, Harper & Row, 1989.
5) 이광복, 「독일의 문학교수법-이론적 논의와 적용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78면.
6) 윤대석, 「결혼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376면.
7) 화학적 반응의 형성을 위해서는 단순충돌이 아니라 유효충돌이 일어나야 한다.

한다면 오히려 이 접촉은 더 큰 혐오나 동화의 욕망을 일으킨다.

혼종적인 존재가 시스템을 교란시킬 때 비체(卑體; abject)로 처리하고 마는 집단의 본성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문화적 마음은 어떻게 가능한가"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다문화적 마음은 타자의 출현(appearance)을 막지 않는다. 재빠른 분류나 개념화, 대응 전략을 기획하기보다는 타자의 낯선 목소리를 공들여 읽고, 타자의 타자성, 나아가 내안의 타자성에 응답한다. 이 지점에서 다문화적 마음과 문학교육의 만남이 가능해진다. 문학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망을 동력으로 삼는 예술이라면, 계몽주의적 기획으로 시작해 통합적 정책으로 수렴되기 쉬운 다문화주의와 공존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주파수를 부여하고 그들과의 유효충돌을 시도하는 문학의 본질은 다문화적 '마음'과는 화해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효충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본고는 그 한 방법으로 '상호문화적 독법(Intercultural Reading)'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호문화적 독법이란 이질적 문화권의 텍스트들, 혹은 문화의 이질성을 함유하는 텍스트들을 넘나들며 접촉시키는 일종의 비교문학/문화적 읽기를 의미한다. 상호문화적 독법의 핵심은 각각의 텍스트들을 가로지르는 대화의 실천이다. 그래서 그 성공 여부는 배타적 동질성을 해체하고 비교의 자세를 견지하는 데 달려 있다.[8] 이러한 독법을 통해 텍스트는 보다 풍성해진 상호텍스트적, 상호문화적 의미망을 형성할 수 있고, 주체는 '문학/문화 비교 문식성'[9] 혹은 '다문

즉 반응이 형성되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분자들을 충돌시켜야 한다.

8) 박상진, 「동아시아 문학은 어떻게 가능한가-해석을 통한 보편적 문학가치의 지향」, 『세계문학비교연구』 15,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06, 33면.

9) 김성진,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화적 마음의 습관'을 함양할 수 있다.

본고가 다문화문학이나 다문화소설에 대한 개념화 작업 대신 상호문화적 독법의 수행을 선택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문학은 항용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추고, 이러저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정의, 분석하는 작업이 갖는 기능적 의미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작품을 교재화한다고 해서 다문화교육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문학작품은 다문화적[10]이라는 명제를 수용한다면 어떤 텍스트가 다문화소설인가 아닌가 보다 어떤 독법이 '다문화적 독법'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11]

따라서 본고는 어떤 소설과 소설, 어떤 문화와 문화를 접촉시킨 후, 그러한 접촉이 발생시키는 효과를 '읽어내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호문화적 독법이 실제 소설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독자에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 모종의 교육적 가능성을 탐험해보고자 한다.

2. 동아시아 소설은 왜 상호문화적 독법을 요구하는가

이 장에서는 그러한 독법의 대상으로 왜 동아시아 문학, 그 중에

10) 김상욱, 「다문화시대, 동화의 서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5,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0, 206면.

11) 아동문학 편에서 이미 '다문화 동화 읽기'에서 '동화의 다문화적 읽기'로 방법적 전환을 시도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김미혜, 2013, 김명석, 2014) 이러한 전환은 교육적 방향의 적실성 뿐만 아니라 텍스트 읽기 방법론(임경순, 2011)이라는 구체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 김명석, 「'마당을 나온 암탉'의 서사 분석과 다문화 교육」, 『돈암어문학』 27, 돈암어문학회, 2014, 김미혜,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6-1,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3, 임경순, 「다문화 시대 소설 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학』 3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서도 한·중·일 소설이 선택되었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상호문화적 독법은 텍스트들이 공통의 마음과 상이한 표정을 가졌을 때 가장 흥미로워지는 독법이다. 함께 묶여질 수 있는 '필연성'과 함께 묶이기 껄끄러운 '다양성'을 동시에 보유했을 때 상호문화적 독법의 역동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인 한·중·일의 소설은 독법의 대상으로 적격이라 할 수 있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운, 이 끈적한 점성의 기분(Stimmung)[12]은 삼국이 맺는 정치적, 문화적 관계의 복잡성에 정확히 상응한다.

주지하듯 한·중·일은 근대라는 외심[13]을 공유하며, 급격한 사회·역사적 변곡점, 전통문화와 서구문명의 충돌 경험, 유교적 가치체계의 흔적을 보유했다. 동아시아라는 문제적 장소(topos)는 서구적 인자의 충격과 함께 근현대화를 이루어왔으며, 현재 그러한 압축적 근대화의 과정이 발생시킨 상처들과 직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처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이나 치유가 요청하며 문학계 역시 그러한 작업 중이다. 일종의 사회적 진도계(earthquake intensity)라 할 수 있는 문학이 감당해야 할 응답 책임성(answer+ability)때문이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제시하는 문학이 요청된다는 거시적 과제 앞에서, 그리고 근대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보유한 동아시아의 조건을 안고 한·중·일 작가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주목할 만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제출된 한·중·일 작가들의 소설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공통의 저항선[14]이 포착된다는 점이다.

---

12) 진은영, 「동아시아 문학의 토포스와 아토포스」, 『창작과 비평』 40-2, 창작과비평사, 2012, 325~326면.

13) 서영채, 「둘째 아들의 서사-염상섭, 소세키, 루쉰」, 『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학회, 2013, 9면.

14) 백지운, 심진경, 이현우, 김영희, 「〔대화〕 세계문학, 동아시아 문학,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 39-1, 창작과비평사, 2011, 346면.

‘지금 여기’에 선 문학이 비판하고 개입하고 책임져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연대하고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많은 동아시아 작가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미혹의 사회’라는 답안을 공통으로 제출하고 있다. ‘88만원 세대’, ‘빠링허우(80後)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 등으로 명명된 그들에게는 일종의 집합적 심성, 즉 공통-마음[15]이 각각의 네이션과 접합되면서 발산하는 표정의 차이 역시 존재한다.

이처럼 한·중·일 삼국의 최근 소설이 자본주의 사회의 제 문제들과 문학적으로 투구하는 양상은 필연적으로 상호문화적 독법을 요구한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독법의 대상으로 한・중・일 작가들이 2000년대 이후 발표한 소설들이 표본적으로 검토되었다.[16] 표본작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작품인가?

-동아시아가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제 문제, 특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품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dominant) 서사화되고 있는가?

-한·중·일 각각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중량감 있는 작가의 작품인가? 즉 작가적 문제의식의 첨예함(문제성)과 미학적 소구력(문학성)을 검증받은 바 있는가?

---

15)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한국사회학』 48-4, 한국사회학회, 2014, 184면.

16) 물론 이 연구에서 검토하는 한·중·일 소설들이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동아시아 문학 전체를 대표하는 증례(case)라 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적 대표성이 아닌 질적 대표성에 가깝다. 사회학이 양적 대표성을 가진 집단을 분석하여 일반화될 수 있는 패턴과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이 연구는 개별 작품들이 공통의 저항선을 문학적으로 밀고 나가는 고유한 방식들을 상호문화적 독법으로 읽어내고, 그것이 암시하는 문학교육적 가능성을 포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표본적 규명은 사회과학의 통계적 연구가 보유하는 양적 확실성과는 다른 종류의 질적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그 결과 다음의 작품들이 검토되었다.

한국: 박민규(2005), <카스테라>, 김애란(2007), ≪침이 고인다>, 김애란(2010), <물 속 골리앗>, 정미경(2006), <내 아들의 연인>, 정미경(2008), <타인의 삶>, 정이현(2003), <소녀시대>, 장강명(2015), <한국이 싫어서>, 배수아(2003),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중국: 성커이(2003), <중독>, 연롄커(2010), <딩씨 마을의 꿈>, 비페이위(2008), <마사지사>, 쑤퉁(2010), <샹차오잉>, 거수이핑(2010), <달빛은 누구 머리맡의 등잔인가>, 쉬이과(2010), <해산물은 나의 운명>
일본: 야마모토 후미오(2001), <플라나리아>, 이시다 이라(2003), <4TEEN>, 이시다 이라(2009), <6TEEN>, 사쿠라기 시노(2013), <호텔 로열>, 시마다 마사히코(2010), <사도 도쿄>

3. 동아시아 소설의 공통-마음, 다른 표정

1) 피로한 미생의 생존 게임

"죽은 사람은 하릴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혈의 누〉(1906) 속 언술은 2000년대 한국 소설을 묘하게 선취하고 있다.[17] 최근 한국 소설 속 인물들을 지배하고 있는 테마는 신(新)다윈주의를 체득한 청년들의 '생존투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때로 찾아드는 '피로감'이다. 낙오되어 좀비가 되지 않고 계속 달려 특실 칸으로 진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17)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미지북스, 2013, 112면.

> "교실 앞문에는 1등부터 58등까지의 학급 석차가 일렬로 나열된 종이가 나붙어 부적처럼 펄럭거렸다...과외를 안하면 공부를 못하게 되고, 공부를 못하면 대학에 못 가게 되고, 대학에 못 가면 시집도 못 간단다. 그래도 괜찮겠니? 이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버려도?"
>
> -정이현(2007), <비밀과외>

이 때 생존의 의미는 그저 '산다'가 아니다. 그것이 전존재를 건 경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살아남는다'에 가깝다. 그것도 '나 혼자'. 이러한 두려움의 심리적 프레임은 20세기 한국의 발전주의적 성장담과 공명한다. 전쟁이 안겨준 배고픔의 기억, '벌거벗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발버둥 쳐야 한다는 태도, 파국 없는 일상을 향한 소시민적 욕망은 〈적자생존〉을 만능의 알리바이로 만든다.[18] IMF를 겪으며 더욱 공고해진 이 알리바이를 가훈(mother-milk ideology)으로 물려받은 아이들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이후 소설이다. 이 '아이들'에게 생존의 목표는 엄청난 성취나 우월감이 아니라 그저 '남들만큼의' 평범한 삶이다.[19] 그리고 이 평범한 삶-프로젝트의 성공적 결과물이 응축된 표상이 '아파트'다.

> 엄마 아빠가 죽었을 때 내가 스무 살이면 좋겠다. 스무 살 넘은 어른을 고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쓸데없는 동정은 딱 질색이다. 혼자가 되면 나는 우선 이 집을 팔 거

18) 신샛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347면.

19) 대기업 자원봉사 대학생을 인터뷰한 한 문화인류학적 연구에 등장하는 청년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그렇게 쳇바퀴 속에서 살고 쳇바퀴 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꿈은 다음 생애에 펼치려고요." 조문영, 「공공이라는 이름의 치유」, 강명구, 김홍중, 신혜선 편,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진인진, 2016, 127~128면.

다. 안 그래도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날 때마다 문 앞에 걸어놓은 시세표를 눈여겨보고 있다. 미도아파트 55평 8억 5천. 저번 달부터 2천만 원 올랐다.

-정이현(2003), <소녀시대>

부모 소유의 아파트 시세를 매일같이 체크하는 조숙한 '소녀'들이 등장하고, 이 소녀들이 성장하여 역시 같은 강남권의 '신혼집' 아파트로 이사한다. 이 안온하고 깔끔한 아파트에도 이따금 "흑갈색 바퀴벌레"(정이현(2003), 〈홈드라마〉) 같은 무료함과 권태감이 기어나오지만 해충 약을 뿌려버리면 그만이다. 어쨌든 아파트는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니까. 하지만 김애란의 소설은 그러한 중산층적 삶의 안온함이 아주 사소한 균열에도 금세 붕괴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임을 폭로한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를 갖고 싶어 했다. 건물의 아름다움, 건물의 역사, 그런 것은 상관없었다. 아파트가 가진 상승의 이미지와 기능, 시세가 중요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괜찮은'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살았다...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했다. 40미터 타워크레인에 올랐다 실족하셨다는데, 사실인지 알 수 없었다...나는 비로소 전 국토가 공사 중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도 수십 년간 용접 일로 생활을 꾸려오셨으니까. 죽음 또한 건설 현장에서 맞으실 수 밖에 없었으니까.....어머니는 실족사한 아버지의 송장이 축축한 걸 의아해하셨다. 물대포라도 맞은 양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애란(2010), <물속 골리앗>

아파트로 이사하고 행복해하던 가족들에게 어느 날 아버지의 부고가 날아들고, 딸은 아버지가 왜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는지 되묻는다. 그때 갑자기 온 세상을 휩쓰는 대

홍수가 일어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딸은 "한쪽 편만 드는 십자가"였던 크레인을 타고 끝없이 표류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아니 언제나 공사 중인 이 땅의 아버지들이 거대한 골리앗에게 악착같이 패배하는 다윗임을 깨닫는다. 어떤 면에서 이 소설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의 2010년 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데 2000년대 한국 소설의 흥미로운 경향은, 난쟁이 가족 뿐 아니라 느닷없이 난쟁이와 조우한 은강그룹 '사모님'들의 내면까지 포착해낸다는 것이다. 과거의 한국 소설이 가진 자를 없는 자의 시선으로 타자화했다면, 이제 가진 자들이 가진 자로서의 삶을 성찰하기 시작한다.[20]

> [나도 모르겠다. 그녀의 전부를 감싸 안으려는 내 태도와 그녀의 자존심은 늘 충돌한다. 그 아이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모였을 때 너무 초라하게 입고, 먹을 때 사소한 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처음엔 화나고, 돌아서면 안쓰럽고, 그런 게 불씨가 된 것 같아. 가난이 D의 일부가 아니라, 공기처럼 그녀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걸 보면 화가 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둘 다 너무 예민해져 있었지만, 결국 내가 부족했던 것이겠지. 엄마 말처럼, 넘을 수 있는 벽과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넘을 수 있는 벽과 사실은 넘고 싶지 않은 벽이 있을 뿐인 걸까.]
>
>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하고 말로 하는 건 어렵지 않다.…… 현이, 넌 걔의 가난이 싫은 거야. 간단한 얘기 복잡하게 하지 마라. 어릴 때부터 변기까지 들여다보며, 우리 아기 예쁜 똥, 미운 똥? 물어가며 키운 내 자식인데 그 속을 내가 모르겠니.]
>
> -정미경(2006), <내 아들의 연인>

20) 신수정, 〈황순원문학상예심평〉, 구효서 외,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중앙일보, 2006. "여태의 한국소설은 대체로 '없는 자의 예술'이었다. 중산층보다 못사는 계급의 서사였다. 가진 자의 서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하나 그건, 없는 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타자(他者)의 세계였다. 그러나 이 소설은 가진 자가 들여다본 가진 자의 이야기다."

서술자인 '나'의 아들은 부유하고 선량한 도련님으로, 컨테이너에 사는 여자친구 도란이 있다. '나'는 아들의 일기장을 통해 두 청년의 사랑이 사그라드는 과정을 담담하게 관찰하는데, 이 관찰의 우아함과 여유로움 속에는 기존 소설 속 부르주아들의 그악스러움이나 위기의식이 없다. '나'의 딸이 간파한대로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 정도야 '아빠가 가진 아파트 중에 하나' 주면 해결되는 문제다. 이제 가진 자들에게는 그 정도 아량과 여유가 있으며 자기중심성을 교묘한 교양으로 포장하는 데도 익숙하다. 핵심은 오히려 '취향의 계급'에 있다. 둘의 결별에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나'의 아들이 준 신용카드로 '도란'이 벙어리 장갑을 산 일이다. 놀랍도록 촌스러운 이 소비 앞에서 아들은 사실 자신이 도란의 세계로 넘어가고 싶지 않음을 인정한다. 이 작품 속 남녀관계가 전도되어 있는 것이 이승우의 〈칼〉인데, 소설 속 가난한 청년 서술자 역시 부르주아 아가씨의 이별 선언을 통해 '취향의 계급'이 골품제보다 강고함을 깨닫는다.

> 순전히 Y에게 사준 루이뷔통 가방과 구찌 시계, 카르파치오와 파스타, 이름도 외우기 힘든 포도주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나는 호프집에서 서빙을 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했다...그녀가 원한 것은 사랑이 아니고 다만 루이뷔통과 페라가모와 사또 라그랑쥬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깨달음조차 스스로 얻은 것은 아니었다. 혼자 지랄하더니 이게 뭐야, 구질구질하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종자들이 좆도 없으면서 뭐 있는 척하는 것들이야.
>
> -이승우(2010), <칼>

진정성의 세계와 속화된 세계는 이따금 접촉하지만 여지없이 속화된 세계가 승리한다. 속화된 세계는 진정성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이 풍기는 가난의 냄새에 "감염될지도 모르"기 때문이

다.[21] '아파트'와 '고시원'[22]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형성되고, 더욱 섬뜩한 것은 이 간극이 극복될 수 없는 것임을 양편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다.[23] 이 무서운 생존 게임 속에서 소진(burn-out)되면서 역할(role) 전환의 길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주체들은 이제 '뛰어넘기'를 포기한다. 대신 게임의 룰[24] 자체를 무시하고 탈주하려는 주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생존주의의 바깥이 문학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탈주에 '못 가진 자'뿐만 아니라 '가진 자'들도 참가한다. 그들 역시 자본의 무한증식을 위한 무의미한 부역을 요구당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25] 이러한 탈주의 방식은 크게 공간적 탈주, 철학적 탈주, 종교적 탈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사례라 할 만한 작품들을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 난 정말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무슨 멸종돼야 할 동물 같아.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뭘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것도 개뿔 없고. 그런 주제에 까다롭

---

21) 영화 〈부산행〉(2016) 속 한 기업 상무는 좀비들을 뚫고 건너 온 주인공을 축출하기 위해 외친다. "이 새끼 감염됐어!"

22) 박민규, 〈갑을고시원체류기〉, ≪카스테라≫, 문학동네, 2005.

23) "'부모는 무력하고 가난하다-따라서 나도 무력하고 가난하다-또한 나의 후속세대도 무력하고 가난하다. 이하동문'의 삼단논법에 의거하여 청소년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선 규정되어 있는 세대로 자처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요지부동한 일관성 및 연속성이 전망 없는 청소년소설, 성장 없는 청소년소설을 만든다." 심지어 한 청소년작가는 구원의 방주 티켓을 살 수 있는 계급(노아)과 살 수 없는 계급(비노아)을 설정하기도 한다. 우신영, 「청소년창작소설에 나타난 부모-자녀 서사 연구」, 『한민족어문학』 73, 한민족어문학회, 2016, 502면.

24) "목적지까지는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가속페달만으로 운전하는 게 혼자 하는 이 경주의 룰이다." 정미경, ≪이상한 슬픔의 원더랜드≫, 현대문학, 2005.

25) 정미경, 위의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엑스터시. 1과 열두 개의 동그라미로 이루어지는 숫자가 내 계좌에 기록되는 순간의 느낌도 이러하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꿈꾸던 것들을 손에 쥔 이 순간에 왜 독하게 가난하고 모든 게 결핍되었던 그날들보다 더 이상한 슬픔이 날 사로잡는 거예요?"

기는 또 더럽게 까다로워요. 직장은 통근 거리가 중요하다느니, 사는 곳 주변에 문화시설이 많으면 좋겠다느니, 하는 일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거면 좋겠다느니, 막 그런 걸 따져. 아프리카 초원 다큐멘터리에 만날 나와서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동물 있잖아, 톰슨가젤. 걔네들 보면 사자가 올 때 꼭 이상한 데서 뛰다가 잡히는 애 하나씩 있다? 내가 걔 같애...

-장강명(2015), <한국이 싫어서>

"한국이 싫어서" 떠난다는 용감무쌍한 발언을 남기며 계나는 국경을 넘는 '공간적 탈주'를 시도한다. '생존'이라는 기본 조건에 '존엄'이라는 필수 옵션을 요구하는 자신이 이 땅에 부적절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행복을 찾아 호주로 떠난다는 자신의 말에 사람들이 실소를 터뜨릴 것을 그녀는 안다. 그래서 연대의 가능성은 아직 모색되지 못한다. 계나와 같은 까다로운 가젤은 '다른 가젤 무리'들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강명은 때로 사자보다도 '다른 가젤 무리'들을 비판적으로 겨냥한다.[26] 부조리한 약육강식의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그 시스템의 내용을 채워 주는 것은 사자라기보다는 외려 온순하게 그 시스템에 복무하는 가젤 무리라는 것이다.

한편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속 '노용'은 무의미한 노동의 세계에 뛰어드느니 우아하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편을 택한다. 최소한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음식물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 그는 충분히 자고 충분히 행복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흔쾌히 주지 않고 노용의 삶의 방식을 증오한다. 그저 쓰레기일 뿐인데도 말이다. 노용은 자신이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그 까닭을 모르겠다며 짐짓 의뭉을 떤다.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야만적이다. 그것은

26) 장강명, ≪5년 만에 신혼여행≫, 한겨레출판사, 2016.

노동을 강요한다. 노용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버리고 있는 정도의 음식물만 있으면, 그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다...대부분의 경우, 일하지 않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노용을 증오하기도 한다. 왜 그러는 거지? 나는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구...노용은 수긍했다. 그런 음식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단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말이다. 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일 터이다...먹을 것을 위해서 이마에 땀이 번질거리도록 일하고 또 일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먹을 것을 단지 배가 부르다는 이유만으로 버리고 있다. 그 두 가지 세계가 원활히 연결된다면 좋을 텐데. 이건 마치 사회를 하나의 전체로 본다면, 상당한 부분, 버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배수아(2003),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노용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부터 '철학적 탈주'를 시도하는 존재이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이 생존 게임의 무목적성을 성찰하게 하는 존재다. 노용과 달리 사람들은 무한생존경쟁에서 경주를 지속하는 것, 그리고 그 경기에서 낙오되지 않고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자각"27)에 집착한다. 여기서 탈주한 인물의 이름이 노용이라는 점 역시 의미심장하다. 한 인간이 가진 모든 역량을 자본으로 환산하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시스템을 거부하는 그의 철학은 과연 그의 이름(No用)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노용보다 더 나아가 아예 종교적 탈주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의 삶〉 속 현규가 그러하다. 서술자는 흠잡을 데 없는 연인을 가졌다. 연인은 친절하고 유능한 외과의사로, 이 세계의 생존 게임에서 명백한 승리자'였다'. 그런 그가 돌연 출가를 선언한다.

27) Bauman, Zygmunt, 『액체근대』, 이일수 역, 강, 2005.

> “당신의 본질은 흉부외과의가 아니라고, 오현규라는 이름도 헛될 뿐이고,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은 그저 허망한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겠지. 나는 누구인가? 그런게 심오한 질문 같지? 서로 찌르고 상처받고, 집착하다 무심해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까닭 없는 증오로 가득 찬 이곳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면,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대답이란 얼마나 공허한 것이니?”...“인생의 어떤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어. 그건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
>
> -정미경(2008), <타인의 삶>

경악한 서술자는 공들여 그를 설득하지만 결국 막지 못한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삶’을 흉내 내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그러한 결심의 근거는 다소 직관적으로 처리된다. 그러다보니 자아 찾기의 과정은 타인과 공유될 수 없으며, 때로는 타인을 버리고서야 가능하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로 귀결된다. 균형감각을 요구하기에는 생존 게임의 룰이 지나치게 강고하기에 그들은 극복이나 타협을 포기하고 탈주해버리는 것이다.

2) 소황제의 자본주의 적응기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 소설들은 자본주의와의 만남에 어떤 방식으로 응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전술했듯 한국소설은 수월성(excellence) 증명이 곧 존재 증명이 되어버린 현실을 묘파하거나 그것에서 과격하게 탈주하는 주체를 등장시키는 작업 중이다. 중국 소설의 경우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되 자본과 가치의 충돌, 전통과 서구의 충돌, 개인과 사회의 충돌, 세대와 세대의 충돌을 다루기 위해 ‘성(性)’ 문제를 충돌의 중핵에 배치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문화대혁명의 기억을 간직한 ‘상흔의 문학’의 시대를 지나 ‘욕망

의 문학'이 등장한 것이다.[28] 새롭게 눈뜬 소비와 표현의 욕망[29]이 가장 먼저 가닿는 지점이 바로 '성'이다. 중국 사회를 빠르게 지배하며 놀라운 속도로 부풀었던 욕망과 '꿈-자본'에 대한 성찰이 시도되면서 그 빈 자리에 남은 허무를 이기려는 몸짓으로서 '성'이 테마화되고, 성적 쾌락과 자본 소비의 손쉬운 호환 관계가 고발된다. 이는 이미 주원의 소설 〈나는 달러가 좋아〉(1995)에서 예견된 바 있다.

> "사는 데 성 말고 다른 건 없니? 난 당최 이해가 안 가는구나."
> 아버지는 원고 뭉치를 한쪽으로 던지며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었다. 내 성에 화가 난 거였다.
> "아니, 어떻게 제 소설에서 성만 보시는 거예요?"
> "작가라면 모름지기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뭔가를 줘야 되는 건 아니니? 이상이나 추구, 민주, 자유 같은 것들 말이다."
>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딴 것들은 제 성 안에 다 있어요."
>
> -주원(1995), <나는 달러가 좋아>

우링허우(50後)와 빠링허우(80後)의 갈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두 세대 간의 논쟁은 단지 부모-자식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두 시대, 두 사회의 충돌과 모순이다. 최세윤(2013)에 따르면 빠링허우는 "소황제로 태어나 배노족, 즉 취직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여 생활하는 집단"이 된 세대를 뜻한

28) 박명애, 「온고지신을 타파하는 질주하는 청춘」, 『작가세계』 24-1, 작가세계, 2012, 350~351면.

29) 김홍중, 앞의글, 159면. "그들은 자신들 세대가 "중국역사에서 최초로 꿈을 꾸기 시작한 세대"라고 토로한다. 그것은 이들의 선배 세대들에게는 아무런 꿈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 세대가 중국 현대사에서 최초로, 자신의 꿈을 국가나 사회의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개인화된' 세대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다.[30] 그들은 개인적 욕망과 성적 추구에 충실하며, 그러한 추구는 '신용카드'에 의해 원활하게 뒷받침된다. 일부 빠링허우들의 광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의미하는 '월광족'이나 '제전소비'라는 용어가 따로 생길 정도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향락의 기쁨보다 그 향락이 주는 혼란이 더욱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 딩씨 마을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모두들 묘당 본채에 향을 올렸다. 수십 년 동안 향을 올린 덕분인지 결국 피를 팔아 돈을 벌게 되자 곧바로 묘당을 허물었다. 관공을 믿지 않고 매혈을 믿게 되었다. 매혈을 믿게 되면서 이 새 학교 건물을 올리게 되었다...딩씨 마을은 피를 팔기 시작했다. 딩씨 마을은 너도나도 미친 듯이 피를 팔기 시작했다...딩씨 마을은 번화해졌다. 딩씨 마을은 떠들썩해졌다. 딩씨 마을은 순식간에 웨이현의 모범 혈액공급 마을이 되었다. 교육부의 가오 국장은 그해에 자신의 지프를 팔고 최신 모델의 소형 승용차를 한 대 샀다.
>
> -옌롄커(2006), <딩씨 마음의 꿈>

중국에서 판금 조치되었던 연롄커의 〈딩씨 마을의 꿈〉에서는 샴푸나 자동차를 사고 싶은 '꿈' 때문에 피를 팔았다가 온 마을이 함께 에이즈에 감염되는 악몽 같은 서사가 숨 가쁜 속도로 펼쳐진다. "인성의 어두운 면, 특히 자본주의라는 유토피아적 환상이 붕괴된 처참한 풍경을 묘사"했다는 작가 옌롄커의 말을 굳이 참고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가 개개인의 욕망을 일깨우는 유속이 아찔하게 서사화됨을 알 수 있다. '딩씨 마을'은 그러한 욕망이 전체적으로 발현되던 공간이라면, 점차 그러한 욕망을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설적 공간들 역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30) 최세윤, 「중국 신세대 양상 및 그 가치관 변화 연구」, 『외국학연구』 24, 중앙대학교 외국어문학연구소, 2013, 485~486면.

> 샹차오잉과 병원의 입원 병동 사이는 겨우 담장 하나 거리에 불과하지만 의사 량 선생은 한 번도 그 작은 골목 안으로 발을 들여 놓은 적이 없었다. 이름을 제외하면 이 골목은 실제로 특별히 거론할 만한 것이 없었다. 골목 입구에는 공중화장실 표시판이 하나 있어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십 미터만 앞으로 가면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비둘기의 깃털과 눈은 순결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남녀로서는 비둘기를 나무랄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느끼는 놀라움과 두려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었다.
>
> –쑤퉁(2010), <샹차오잉>

명망 높은 의사 량 선생은 병원 옆에 위치한 더러운 뒷골목 '샹차오잉'에 발조차 들여놓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동료 의사와의 불륜 행각을 위해 '샹차오잉'에 집을 구하게 된다. 그러다 집주인이 키우는 비둘기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주시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낀다. 병원이 량 선생의 공적 페르소나에 적합한 공간이라면 샹차오잉은 그 페르소나의 이면에 자리한 민낯을 드러내고, 억압된 욕망을 배설하기 위해 요청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처럼 2000년대 중국 소설에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뒷골목, 혹은 개혁개방의 중심에 놓인 '경제특구'의 장소성이 빈번하게 활용된다.

> 더군다나 선전은 특구이기까지 했다. 특구가 대체 뭔가? 인건비가 더욱 싼 곳이다...소식에 따르면, 선전에 맹인 마사지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온 거리가 다 돈이라더라. 살아서 펄펄 뛰는 잉어처럼 땅에서 솟구치고 하늘에서 떨어진다더라. 외지 사람들은 곧 선전 기차역 근처에서 온 거리가 맹인들의 물결로 넘쳐나는 웅장하고 화려한 풍경과 마주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도시는 개혁과 개방의 창구일 뿐 아니라 맹인들의 응접실이자 천국이었다...닥터 왕의 수입은 제힘으로 먹고사

는 것 이상이었다. 그야말로 꿈속을 노니는 격이었다. 그는 위안화뿐 아니라 홍콩 달러와 엔화, 미국 달러까지 벌어들였다.
-비페이위(2008), <마사지사>

비페이위의 〈마사지사〉에서는 돈이 아라비안 나이트 속 마법 양탄자처럼 미쳐 돌아가며 '기이한 엔진 소리'를 내는 경제특구 선전의 풍경이 묘파되어 있다. 홍콩 반환을 기점으로 선전특구의 마사지사들은 글로벌 자본을 벌어들이게 된다. 특별구역은 행정적으로는 중국에 속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권의 지역이 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장소성을 가진다. 선전이나 광저우 같은 특구는 국익의 배신자이자 개척자라는 이중적 잣대로 틀지워진다.[31] 성커이의 〈중독〉 역시 선전특구 특유의 흥성거림을 주조음으로 삼고 있다. 줘이나의 연인 첸진은 직장과 후커우(戶口)가 모두 선전에 있다는 이유로 굉장한 우월감을 느끼는 인물이다. 그는 회사로부터 집을 분양받기 위해 기혼자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줘이나와 혼인한다. 줘이나는 결혼 전 불법 브로커를 통해 신장에서 선전으로 후커우를 옮겨오고, 중산층의 삶에 안착한다. 그리고 선전이 제공하는 도시적 쾌락에 충실한 인물로 변모해간다. 이후 서사의 흐름은 추동하는 것은 줘이나의 쉴 틈 없는 불륜 편력이다.

원제인 '수유(水乳)'가 뜻하듯 물과 우유 마냥 혼탁하게 뒤섞인 욕망은 가치의 진정성에 대한 성찰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찰의 가능성은 반어적으로 〈마사지사〉 속 맹인들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모색된다. 혹은 중산층의 꿈을 안고 도시로 올라왔으나 결국은 박민규의 소설 속 인물들처럼 사회의 밑바닥을 형성해주는 인물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부박함이 고발되기도 한다. 비페이위의 소설 〈사랑하던 날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해산물은 나의 운명〉에

31) 오윤정, 「환상 기제를 통한 카오 페이의 코스플레이어스 작품 연구」, 『조형교육』 51, 한국 조형교육학회, 2014, 236면.

등장하는 도시 가정부가 그러한 인물군을 대표한다. 저임금노동력으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바닥층을 형성하는 '와따이런'을 소재로 한 쇠이과의 〈해산물은 나의 운명〉은 시종 유머러스하게 주인 부부와 가정부 사이의 에피소드를 그려내지만 결국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샤오타오는 해산물을 실컷 먹고 싶어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지만 주인 부부는 그녀의 식탐과 드라마 시청을 구박하며, 그녀가 3,200위안짜리 아이크림을 깨트리자 그녀를 쫓아낸다.

> 궁지에 몰리자 여주인도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계집애로구나! 이 아이크림이 얼마짜린 줄 알아? 3,200위안짜리란 말이야!"..."3,200위안이라고요? 3,200위안? 제 넉 달 치 월급이 이 코딱지만 한 아이크림 한 병 값이란 말이에요! 3,200위안이면 꽃게를 얼마나 살 수 있고, 참새우랑 황도미를 얼마나 살 수 있는데요!"...이런 모습을 본 샤오타오는 더욱 서러워하면서 세상에 자신을 알아주는 것은 단오뿐이라고 생각했다.
>
> -쉬이과(2010), <해산물은 나의 운명>

그녀는 자신의 넉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아이크림의 가격을 알고 말문이 막힌다. 쫓겨난 그녀를 다시 찾아온 것은 주인 부부가 아니라 그들이 기르던 개 단오이다. 이처럼 계급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매우 밀착된 관계를 맺는 가정부-부르주아 주인을 다룬 서사는 한국에서도 발견되는데, 손보미(2014)의 〈임시교사〉가 한 예이다.

이 같은 가치 갈등과 혼탁의 기원을 전통문화와 서구문화의 충돌 지점에서 찾는 시도 역시 발견된다. 거수이핑의 〈달빛은 누구 머리맡의 등잔인가〉가 대표적인데, 베이징대 물리학과 출신 국비 유학생 아인이 독일 생활을 거치며 여행사 가이드로 변모하고, 독일인 아내

와 문화갈등 끝에 이혼하는 이야기가 서사의 대강을 이룬다.

> 아인은 마침내 전통 종법이 여러 해 동안 이어지려면 왜 남녀집안의 수준과 형편이 비슷해야 하고 동방화촉이 오래가려면 왜 재자(才子)와 가인(佳人)이 만나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그는 1960년대에 조국이 독생자녀만 허용하기 시작했을 때 솔선수범한 결과였다...저녁 무렵이 되어 어머니는 설 <연환만회>(중국 CCTV에서 방영되는 설 특집 쇼프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당신과 당신 어머니 둘 다 지금 당장 정신과 의사에게 가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인이 벌떡 일어서며 말을 받았다. “마크, 나와 우리 어머니의 이런 즐거움마저 빼앗아버릴 생각이야?”...20분쯤 지나 누군가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인이 문을 열어보니 경찰 두 명과 정신과 의사였다...“우리 어머니는 평생 글도 배우지 못한 분이오. 당신들 같은 서양 코쟁이들이 중국의 풍토와 인정을 알 리가 없지!”
>
> - 거수이핑(2010), <달빛은 누구 머리맡의 등잔인가>

소황제로 태어나 엘리트로 성장했던 아인은 그러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아내 마크와 충돌한다. 마크가 중국 문화를 거부하는 양상은 ‘시끄럽다’거나 ‘냄새난다’거나 ‘짜증난다’는 감각적 차원으로 표출된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다. 결국 독일에 놀러왔던 아인의 어머니로 인해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아인과 아인의 어머니는 그들만의 ‘중국적 설’ 의례(ritual)를 행했을 뿐인데, 마크는 공권력으로 대응한다. 마크가 문화적 타자성을 괴물화하고 배척하려 들자 아인 역시 마크를 ‘서양 코쟁이들’로 타자화한다. 결국 두 사람은 양육비 명목의 돈을 주고 받는 날만 조우하는 사이로 돌아선다. 전통문화와 서양문화의 갈등이 초점화되는 양상은 빠링허우 작가의 대표격인 한한에게서도 나타난다.

그의 소설 〈이상도시〉(2006) 속 청년들은 상업화의 절정을 달리는 가상 도시를 매우 시니컬한 태도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다. 이 도시는 전 세계에서 성탄절 매출이 가장 높은 도시로 그려진다. 그런데 이 성탄절 날 갑자기 시청사가 폭발하고 도시가 마비된다. 군중들은 마비된 도시 곳곳의 쇼윈도를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아수라적 풍경을 형성하고, 서술자는 이러한 군중에 대한 냉소적 시선을 '이상도시'라는 제목에 반어적으로 투영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을 접한 한국 독자들이 상호문화적 독법의 수행을 선취하는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32]

3) 로스제네의 정신 승리법

일본은 동아시아권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라벨링 작업을 가장 먼저 시도한 편이다. 야마다 마사히로에 의해 1998년은 일본이 공적 희망을 상실한 원년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 '1998년 문제'에 의해 전망을 상실한 세대는 '로스트 제너레이션(Lost Generation)', 약칭 '로스제네'로 명명된다. 즉 이 용어는 1971년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하여, 이전 세대에게 주어졌던 교육과 직업 사이의 연계고리를 상실한 일본 청년 세대를 일컫는다. 과거에는 교육 제도와 직업 선발 제도를 연계하고자 했던 근대 일본의 독특한 성인기 이행 시스템(일명 신소츠 신화)과 일본 특유의 종신고용제가 결합되며 정적인 형태의 라이프코스가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해 이러한 코스 역시 변화되었고, 그러한 변화는 다시 부등교 현상과 쁘띠 내셔널리즘, 히키코모리와 오타쿠[33], 후

32) 신혜선(2016)에 따르면 이 책이 출간된 후 많은 한국 독자들이 한한이 고발한 중국의 문화적 상황을 한국 또는 아시아 전체로 옮겨 상상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혜선, 「빠링허우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한한 현상」, 강명구, 김홍중, 신혜선 편, 앞의책, 2016, 224~225면.

리타 족이라는 '현상'들로 이어졌다. 미술가 이시타 테츠야의 그림 속 청년들이나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천박함을 차용한 팝아트 '슈퍼플랫' 등이 로스제네의 감성을 표상한다.

그래서 한·중·일 세 나라 청년 세대의 공통성을 분석하는 한 연구에서는, 오늘날 일본 청년들의 마음을 무한 경쟁 체제의 바깥으로 탈주하지 못하고 성실한 샐러리맨으로 사축(飼畜)당해야 한다는 '폐쇄감'과 '무력감'으로 요약한다.[34] 이러한 '마음'과 그 '마음'이 현실 응전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소설에서도 주요한 테마로 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모종의 방식으로 경쟁 체제에서 밀려난 인물들을 초점화자로 선택하는 경향이다. 즉 유능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잃어버린 인물들에 의해 '인간은 왜 일해야 하는가?'[35]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초점화자들은 영육의 에너지를 모두 상실한 암 환자(〈플라나리아〉), 성인의 세계로 진입하기를 거부하는 소년들(〈4TEEN〉, 〈6TEEN〉), 실패한 러브호텔 사업가(〈호텔 로열〉), 임사체험 중인 보험사 영업사원(〈사도도쿄〉) 등이다. 현실에 대한 그들의 시선과 태도를 차례로 일별해보자.

---

33) 김민수, 「무능현실 전능예술의 역설, 오타쿠 문화와 무라카미 다카시로 본 일본」, 『일본비평』 5,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1, 592면.

34) 高原基彰,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정호석 역, 삼인, 2007, 27면.

35) 사랑, 탄생, 죽음, 밥, 잠이 소설의 5대 테마라고 본 포스터의 이론을 비판한 제라파는 이제 소설이 '일'의 테마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물신론적 가치에 의해 왜곡되는 인간성을 고발하는 것이 성실한 작가들의 공동과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ichel Zeraffa, Fictions, translated by Catherine Burns&Tom Burns, Penguin Books, 1976, pp.93~94. 소설가 이노우에 히사시 역시 나오키상 심사평에서 '사람은 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가 나쓰메 소세키의 〈그 후〉 이래 일본문학의 큰 주제였으며, 〈플라나리아〉가 그에 대한 현대적 응답이라 평한다.

> 회사를 그만둔 것은 단순히 일할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다. 모든 게 다 귀찮았다.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귀찮고 내 손으로 죽는 것도 귀찮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병원에 다닐 것도 없이 암이 재발해 죽어 버리면 좋을 텐데 솔직히 말해 그게 가장 무서웠다. 모순이다. 나는 모순된 나 자신에 지칠 대로 지쳐 버렸다...무직자가 된 지도 이제 슬슬 두 해째다. 처음에는 '34세, 무직'이라는 말이 풍기는 여운이 범죄자처럼 느껴져서 무서웠지만 그것도 금세 익숙해졌다. 내가 생각해도 적응력 하나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단하다. 이제는 '36세, 무직'이 된 내 처지에 몸도 마음도 완전히 익숙해졌다...
>
> "다음 생에는 플라나리아로 태어나고 싶어. 아무 생각도 않고 살 수 있잖아."
>
> -야마모토 후미오(2001), <플라나리아>

어린 시절부터 삼십 대까지 성실하게 시스템에 복무했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가 된다. 비록 암은 성공적으로 치유되었지만 병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현실의 강고함이 허구였음을 깨닫는다.

> 십 대 때부터 오로지 앞으로 앞으로, 위로 위로 나아가고 싶었던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승자가 되고 싶었다. 무턱대고 이기고만 싶었다. 하지만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지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했던 예전의 나는 이제 너무 지쳐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여태껏 억지를 쓰며 살아 왔을 뿐, 사실은 게을러빠진 지금의 내가 진짜 나인 걸까. 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귀찮았다.
>
> -야마모토 후미오(2001), <플라나리아>

"앞으로 앞으로, 위로 위로 한눈팔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시스템"은 분명 "천박"하고, 그 시스템에 복무했던 나의 욕망은 진짜 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현실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그저 단순한 '플라나리아'의 삶을 희망한다. 현실 세계에 그 어떤 소망이나 전망도 부과하지 않는 '쿨'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정미경의 소설 〈타인의 삶〉에서 오현규가 세속의 세계에서 불교의 세계로 스스로를 재배치한 것처럼, 〈플라나리아〉 속 인물 역시 암을 계기로 성과의 세계에서 무용(無用)의 세계로 넘어간다. 후루이치 노리토시에 따르면 최근의 일본 젊은이들에게 '사토리'(さとり) 세대라는 별칭이 부과되고 있다. 깨달은 세대, 혹은 득도 세대라는 뜻의 이 사토리 세대는 마치 성불한 불교도 같이 욕망의 영점지대에 도달한 삶을 기획한다. 초탈의 정신 승리법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성과주체들의 시선은 냉소로 가득하다. 혁명가도 비판적 지성도 아닌, 그저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를 외치는 이들이야말로 오히려 '문제적 인간'으로 취급받는다. 〈플라나리아〉 속 그녀에 대한 가족과 친구들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시선은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속 노용을 보던 사람들의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자발적으로 '벌레'로의 '변신'을 꿈꾸는 그녀의 모습은 심지어 연인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 반듯한 직장에서 반듯하게 일할 때만 존재의의가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설집 속 주동인물들은 대체로 다양한 '무직' 상태를 고수한다. 수월성을 뽐내야 하는 오디션에서 탈락해 본 자들의 눈에는 그 오디션 시스템의 경박함과 부조리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이다.

〈4TEEN〉과 〈6TEEN〉은 소년들의 거리소설 형식을 띠고 있는 소설로, 대도시 도쿄에서 약간 떨어진 쓰키시마를 주 무대로 삼는다. 쓰키시마는 도쿄의 매립지에 만들어진 새로운 거리로, 부자와 빈자, 낡은 몬자야키 집과 초고층 맨션의 스카이라인이 공존하는 중간지대이다. 인물들 역시 조로증에 걸린 부잣집 도련님, 가난에 찌들어 아버지의 죽음을 방조하는 소년, 거식증에 걸린 소녀, 권태로운 유부녀와 사랑을 나누는 우등생 등으로 그 계층과 성격이 다양하

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아직 갈등으로 전면화되지 않는다. 그들 사이에는 그들을 묶어주는 사춘기적 감성의 공동연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인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는 하지만 그 세계가 지닌 허구성 역시 간파하고 있다.

> 이 사회에 내가 비비고 살아갈 자리가 있을까...
> "왜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좋아하는 척해야 하는 거죠?"
> 도쿠 아저씨는 짐짓 주위를 둘러보는 척하고 나서 목소리를 낮췄다.
> "그야 당연히 주위 사람들 시선이 두려우니까 그렇지. 모두들 거짓말을 하고 있는 회사 안에서 나는 일이 싫소, 재미없소, 내 알 바 아니오, 하는 얼굴을 해보라고. 회사 전체에 뒷말이 퍼져서 따돌림을 당하고 말걸. 어느 시대에나 진실이라는 건 폭탄처럼 위험한 거야."
>
> -이시다 이라(2009), <6TEEN>

사실은 어른들도 '일'을 하기 싫다는 것. 그것은 모두들 공공연하게 알지만, 공공연하게 말할 수는 없는 위험한 진실인 것이다. 그래서 소년들은 숫자의 세계 대신 감각의 세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추구한다. 그들이 기존의 어른들처럼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겁이 나서라기보다는 의미를 찾지 못해서인 것이다.

> "어른들은 진정한 친구니 일생의 꿈이니 삶의 보람이니 하는 말을 쉽게 하지. 그런 게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 먹을 게 더 중요한 거야."... '오늘 날씨 좋군요'라든지 '날이 제법 선선해졌군요'라는 대화가 최고의 호사라는 세계도 의외로 나쁘지 않은 건 아닐까. 풍요나 종신연금이나 경제성장률 같은 것에 평생 매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주위에는 준과 나오토, 다이 같은 친구도 있고, 도쿠 아

저씨 같은 재미있는 어른도 있다. 신중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이를 먹어갈 수 있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심했다.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꼭 날씨 얘기를 하자고 말이다.

-이시다 이라(2009), <6TEEN>

그래서 주인공 데쓰로는 경쟁적 성과를 거두고 인정투쟁을 벌이는 대신 좋아하는 사람과 날씨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아주 괜찮은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서" 나누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편 〈호텔 로열〉의 서술자는 한 평범한 러브호텔이 폐허로 변한 시점부터 개업하기 전까지 40여 년을 역순으로 훑어나간다. 이 변두리 러브호텔이야말로 작가 자신의 말대로 "현실에서 무대 뒤를 볼 수 있는 세계"이며 빈곤과 욕망 사이의 다양한 함수 관계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40여 년 동안 많은 손님들이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일상의 탈출구를 찾아서 호텔 로열을 찾는다. 하지만 결국 수지를 맞추지 못한 주인 마사요는 호텔의 폐업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인식에 도달한다.

막상 나가기로 결정하고 나니 이곳은 마사요가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아니었다. 아버지도 엄마도, 그리고 마사요 자신도 호텔을 경영했다기보다 오히려 '호텔 로열'이라는 건물이 자신들을 여태까지 실컷 부려먹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텔 건물은 날마다 돈을 낳아주었지만, 온통 대출 빚이었던 탓에 그만큼 이자를 갚아나가느라 늘 허덕였다. 밤낮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생활은 애초부터 당연한 일이었다. 손님은 해가 쨍쨍한 대낮에도 캄캄한 밤을 원하며 이곳에 찾아온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뚜껑에 돈을 지불한다.

-사쿠라기 시노(2013), <호텔 로열>

아무리 열심히 노동해도 그 노동은 결코 마사요 가족을 부유하게 해주지 못했으며, 다음 달 이자를 치르기 위한 노동을 재촉할 뿐이다. 그렇게 40여 년이 흐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호텔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호텔이 인간을 경영해왔다는 '전도된 진실'을 깨닫는다. 이런 자각은 마사요만의 것은 아니다. 〈사도 도쿄〉의 주인공 역시 독특한 입몽(入夢)과 각몽(覺夢)의 과정을 거치며 모종의 깨달음을 얻는다. '나'는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그의 생애 서사는 구직과 실직, 새로운 구직의 연속이다. 결국 보험 영업사원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그는 자신의 몸뚱이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아내 리리코와 딸 아사미의 의식주를 위해 존재하는 몸이며, 그래서 계속 노동력을 염가에 팔지 않으면 안 된다.

>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는 의지라든가 자신이라든가 투쟁심 등이 필요한데, 국가는 국민에게서 그런 것 전부를 빼앗고 나아가 고용과 노동의욕도 박탈했다. 내 원한은 마리아나 해구보다 깊다. 머리도 기술도 단련하지 못한 채 대학 졸업. 경기 동향을 주시하며 전직을 거듭하기 열 번. 운도 없지, 마지막 들어간 회사는 도산. 실업급여 삼 개월. 고용지원센터 드나들기 총 열네 번. 쉰 살 남자에게 떨어진 일자리는 보험 영업. 목하 세계는 파국을 향해 치닫는 중. 흔한 얘기지. 일하면 자유로워진다는 건 말짱 거짓말.
>
> -시마다 마사히코(2010), <사도 도쿄>

이 타인의 몸뚱이와 타인의 삶을 잠시나마 떠나는 것은 '의사죽음'으로나 겨우 가능하다. 자신이 죽어 저승에 당도했음을 깨달은 그는 읊조린다. "겨우겨우 와 닿았구나, 자본주의의 피안..." 하지만 이 저승세계에도 시대적 분절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느 시대로 돌아가 저승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그 밖에 인구가 많은 연도는?” “1960년대는 많아요. 단카이 세대의 청춘 시절이니까.” “1945년은 어때?” “대공습 때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다 타버린 흔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버블 시대는 무척 북적거리겠네.” “네, 많죠. 버블 시대의 사망자는 저승에서도 붕붕 떠 있고 싶은가 봐요.”
>
> -시마다 마사히코(2010), <사도 도쿄>

다른 영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의 근현대사 풍경이 스케치되는데, 단카이 세대의 청춘 시대인 1960년대와 버블 시대인 1980년대는 저승에서도 인기가 많은 반면, 최근 시대는 그렇지 못해 낮은 인구 밀도를 보인다. 이런저런 시대를 헤매던 끝에 그는 한 여성의 영혼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 의해 임사체험을 종료 당한다. 다시 이승의 세계로 돌아온 그를 본 아내의 얼굴은 밝지 못하다.

> 지급될 예정이던 보험금을 못 받으니 아내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지만, 나의 소생(蘇生)을 딸아이가 기뻐해준 것이 무엇보다 흐뭇하다. 이승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어도 ‘본 어게인’을 경험했으니 행운이 따라올 것도 같다. 하긴 이것도 달콤한 전망인가.
>
> -시마다 마사히코(2010), <사도 도쿄>

아내의 관점에서 그는 한 인간으로서 “소생”했다기보다 노동하는 기계로서 “재기동”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별 볼 일 없는 ‘노동-기계’였으므로 차라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내 편에서는 이득이다. 그는 그러한 아내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아빠의 “재기동”을 순수하게 기뻐하는 딸의 미소를 보고 위안을 받는다. 그래서 그저 막연한 예감이긴 하지만 나름의 ‘달콤한 전망’을 가져본다. 사토리 세대의 초월자연하는 태도와 희미하기 짝이 없는 이 ‘달

콤한 전망'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항하는 방법론으로 지나치게 개인적이며 무력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성찰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행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방향 틀기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런 방식의 '낙관적 탈존주의' 역시 나름의 힘과 의미를 가진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임형택(1985)은 "역사상 장구히 한자문화를 공유한 하나의 세계"였던 동아시아가 더 이상 "통일적으로 의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낯설어졌음에 주목한다. "민중의 무한한 반감을 일으키는" 일본, "가장 멀고도 으스스한" 중국으로 표상[36]되는 동아시아의 '기분'을 생산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은 정치보다는 문화 영역에서 수월할 지도 모른다.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각 국가들이 안팎으로 맺고 있는 복잡한 역사적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의 방식 등으로 인해 매우 민감한 개념이다. 이처럼 상위정치 갈등 요인이 강할 때는 기능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37]

문학이라는 우회로를 택하는 것이 때로 상호문화적 타자 이해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가 2000년대 이후 제출된 한·중·일 소설을 대상으로 상호문화적 독법을 수행하는 과정을 시도한 까닭 역시 그 때문이다.

문학은 그 자체 상품이면서도 상품으로서의 소모적 운명을 거부하고, 상품경제의 원리를 부정한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내부화된

36) 임형택, 「머리말」, 임형택, 최원식,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비평사, 1985, 34면.
37) 주봉호, 「동아시아공동체의 내용과 방향 모색」,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6-2, 한국시민윤리학회, 2013, 112면.

외부자"라는 모순적 성격을 지닌다.[38] 근대성을 매우 지난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권의 문학적 서사들은 그러한 모순적 존재로서 문학이 갖는 현실응전의 힘을 풍부하게 내장하고 있다. 이러한 힘들이 발현되는 양상을 상호문화적으로 읽어내는 작업은 다문화사회에서 문학교육이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해 약간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다.

기실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주의' 등등 어떤 용어를 취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제에 대한 고민들은 결국 모종의 교육적 지향점을 갖고 있으며, 공동선을 위한 선의를 표방하는 교육적 담론이 된다. 본고가 제안하고 수행한 '상호문화적 독법' 역시 '다문화사회에서 문학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는 까닭은 문학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계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선언이며 지향이다.[39] 범교과 학습주제의 하나로 던져져 있을 뿐 교육내용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그저 부가적(additional)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것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당장 문학교실 속에서 세계문학이 다루어지는 방식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문학교육은 문학교육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문화적 마음을 함양시켜갈 수 밖에 없는데, 그 출발은 역시 문학작품이 갖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활용하는 방향일 것이다. 그래서 국어과 선택교과 〈문학〉 교육과정에서는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요 학습 요소로, 한국문학과 외국 문학의 '비교적 읽기'를 주요한 학습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교과서 및 현장의 문학교실에서는

38) 서영채, 앞의글, 19면.
39) 진선희, 「다문화 사회의 국어과 교육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0, 406면.

세계문학에 대한 교육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형국이며,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문학 교육 역시 서구의 그것에 경사되어 있다.

김성진(2015)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문학교과서 속 외국 작품 목록의 대부분은 민망할 정도로 서구 문학에 치중되어 있다.[40] 그러면서 그는 비교적 읽기를 통해 민족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통찰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시된 것이 20세기 초반 베트남 작가 응웬 꽁 호안의 소설 〈희극 배우 뜨벤〉과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다. 국적과 문화를 달리 하는 작가들이 근대화의 초입에서 아이러니적 전도와 행불행의 교차라는 문학적 방식을 취한 까닭을 질문하다보면 일종의 '문학/문화 비교 문식성'이 함양된다는 것이다. 다른 세계 문학 역시 그러하겠지만 특히 동아시아 문학 개념은 한국문학의 세계성과 주변성을 동시에 통찰할 수 있는 중간적 개념으로서 민족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41]

문학교육이 다문화교육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학/문화 비교 문식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추구는 오히려 공교육 바깥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10여 년에 걸쳐 한·중·일 작가들과 출판사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평화그림책〉 시리즈나 '자음과 모음' 출판사의 한·중·일 소설 동시 게재, 각국의 근·현대 고전을 선정해서 번역하는 '동아시아 100권의 책' 프로젝트, 중·한·일 동아시아 문학포럼 등이 그것이다. 2015년 개최된 중·한·일 동아시아 문학 3회 포럼에서 소설가 시마다 마사히코가 동아시아인들의 불안에 대해 지적한 발언은 본고의 문제의식과 상응

40) 김성진, 앞의글, 53면.

41) 박인기(2011) 역시 보편성과 해당권역의 특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 사고 있다. 박인기, 「학교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커리큘럼 상호성」,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27면.

한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생물의 생존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나름대로 생존하기 알맞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장소 혹은 조건을 니치(niche)라고 부른다...오늘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니치를 찾아 정처 없이 헤매 다니고 있다.”

이러한 불안 앞에서 동아시아 소설은 공동의 저항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교직하여 읽는 상호문화적 독법을 통해 우리는 다채로운 사유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국가의 틀이나 국가간 정냉(政冷)을 뛰어넘는 공간을 허락한다. 이 공간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추상적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다문화적 마음’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적 마음은 특정한 집단에 의해 기획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경험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연대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문학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일 것이다. 본고가 제안한 상호문화적 독법은 그러한 경험의 한 방식이며, 이는 문학/문화 비교 문식성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법이 된다.

■ 참고문헌 ■

1. 자료

김애란, ≪침이 고인다≫, 문학과지성사, 2007.

박민규, ≪카스테라≫, 문학동네, 2005.

배수아,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문학과지성사, 2003.

이승우 외, ≪젊은 도시, 오래된 성(性) : 하나의 키워드, 전혀 다른 상상력 12명의 작가가 펼치는 소설의 향연≫, 자음과모음, 2011.

장강명, ≪한국이 싫어서≫, 민음사, 2015.

정미경, ≪내 아들의 연인≫, 문학동네, 2008.

_____, ≪프랑스식 세탁소≫, 창비, 2013.

정이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03.

畢飛宇, ≪마사지사≫, 문현선 역, 문학동네, 2015.

盛可以, ≪중독≫, 허유영 역, 자음과모음, 2011.

閻連科, ≪딩씨 마을의 꿈≫, 김태성 역, 아시아, 2010.

櫻木紫乃, ≪호텔 로열≫, 양윤옥 역, 현대문학, 2015.

山本文緒, ≪플라나리아≫, 양윤옥 역, 예문사, 2016.

石田衣良, ≪4TEEN≫, 양억관 역, 작가정신., 2016.

_____, ≪6TEEN≫, 이규원 역, 작가정신, 2016.

2. 논문

김명석, 「'마당을 나온 암탉'의 서사 분석과 다문화 교육」, 『돈암어문학』 27, 돈암어문학회, 2014, 285~309면.

김미혜,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6-1,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3, 5~31면.

김민수, 「무능현실 전능예술의 역설, 오타쿠 문화와 무라카미 다카시로 본 일본」, 『일본비평』 5,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1, 90~125면.

김상욱, 「다문화시대, 동화의 서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5,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0, 201~224면.

김성진,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35~58면.

김학희, 「부티크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다문화교육』 1-2,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1-2, 2010, 63~79면.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한국사회학』 48-4, 한국사회학회, 2014, 179~213면.

박명애, 「온고지신을 타파하는 질주하는 청춘」, 『작가세계』 24-1, 작가세계, 2012, 350~367면.

박상진, 「동아시아 문학은 어떻게 가능한가-해석을 통한 보편적 문학가치의 지향」, 『세계문학비교연구』 15,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06, 5~41면.

백지운, 심진경, 이현우, 김영희, 「[대화] 세계문학, 동아시아 문학,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 39-1, 창작과비평사, 2011, 335~371면.

서영채, 「둘째 아들의 서사-염상섭, 소세키, 루쉰」, 『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학회, 2013, 8~42면.

신샛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먹는 인간'의 의미」,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333~359면.

오윤정, 「환상 기제를 통한 카오 페이의 코스플레이어스 작품 연구」, 『조형교육』 51, 한국 조형교육학회, 2014, 233~255면.

윤대석, 「결혼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201~229면.

이광복, 「독일의 문학교수법-이론적 논의와 적용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59~86면.

임경순, 「다문화 시대 소설 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학』 3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387~420면.

주봉호, 「동아시아공동체의 내용과 방향 모색」,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6-2, 한국시민윤리학회, 2013, 93~124면.

진선희, 「다문화 사회의 국어과 교육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0, 403~428면.

진은영, 「동아시아 문학의 토포스와 아토포스」, 『창작과 비평』 40-2, 창작과비평사, 2012, 313~328면.

최세윤, 「중국 신세대 양상 및 그 가치관 변화 연구」, 『외국학연구』 24, 중앙

대학교 외국어문학연구소, 2013, 479~505면.

3. 단행본

강명구, 김홍중, 신혜선 편,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진인진, 2016.

임형택, 「머리말」, 임형택, 최원식,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비평사, 1985.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미지북스, 2013.

高原基彰, 정호석 역,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삼인, 2007.

Bauman, Zygmunt, 이일수 역, 『액체근대』, 강, 2005.

Walker, Lenore L., *Terrifying Love*, Harper & Row, 1989.

Zeraffa, Michel, *Fictions*, translated by Catherine Burns&Tom Burns, Penguin Books, 1976.

<Abstract>

A Study on Intercultural Reading of East Asian Novels

Woo, Shin-Young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reading literature that dismisses exclusivity and maintains a comparative attitude, and calls it intercultural reading. In other words, the texts of the heterogeneous cultures are crossed and brought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through interactive reading across the texts.

What is remarkable is that a common resistance line to the capitalist system is captured in the novels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writers submitted since the 2000s. The dominant aspect of Korean novels is the tired survival struggle of young people. In the case of Chinese novels, they share a similar problem consciousness but place the 'sex' issue at the core of the conflict to deal with conflicts. Japanese novels are in a state of deep closure and powerlessness, or present fundamental questions about capitalistic labor.

Intercultural reading of these aspects of empowerment can lead to implications for literacy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ace of the insecurity of capitalist society, East Asian literature is searching for a common resistance line, and we can form various thoughts and solidarity through intercultural reading that weaves together. In such a possibility, we can pursue 'multi-cultural mind' rather than abstract multiculturalism. The intercultural reading proposed in this paper is

one direction of such pursuit.

Key words: East Asian literature, East Asian novels, Multi-culturalism, Intercultural read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투 고 일 : 2017년 5월 19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25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